논어 6편 옹야 20장 · 원문·풀이

樊遲問知。子曰：「務民之義，敬鬼神而遠之，可謂知矣。」問仁。曰：「仁者先難而後獲，可謂仁矣。」

독음 · 번지문지 자왈 무민지의 경귀신이원지 가위지의 문인 왈 인자선난이후획 가위인의

쉬운 풀이(요약) · 지혜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힘쓰며 귀신을 공경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인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이익은 뒤로 두는 것이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樊 울 번 번 / 遲 늦을 지 지 / 問 물을 문 문 / 知 알 지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務 일 무 무 / 民 백성 민 민

之 갈 지 / 義 옳을 의 의 / 敬 공경할 경 경 / 鬼 귀신 귀 귀

神 천신 신 신 / 而 말이을 이 / 遠 멀 원 / 可 옳을 가 가

謂 고할 위 위 / 矣 어조사 의 / 仁 어질 인 인 / 者 놈 자

先 먼저 선 선 / 難 어려울 난 난 / 後 뒤 후 후 / 獲 얻을 획 획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